

마음 열기

찬송가 406장을 함께 부르시다.

패밀리 방학 후기를 간단히 나누어 주세요.

말씀 나누기

느헤미야 6장 15-19절, “**믿음으로 세워짐**”

단 52일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로 계속해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단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지어주셨습니다(15절). 이처럼 빠른 시간에 성벽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과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감당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도비야와 같은 원수들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한 손에는 건축하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연합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혈과 육에 휩쓸려 분쟁하지 않고, 믿음으로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잠시 멈추고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벽 재건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자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습니다(16절). 그 이유는 유다 백성과 함께하시며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점점 연합하고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

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했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수5:2-12).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어떤 나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만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약해지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무너지며, 점점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해지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방해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도비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족과 제사장 가문은 도비야와 사돈을 맺었고, 그들은 편지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협박했습니다(17-19절). 높은 직분에 있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첩자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룩과 같은 방해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엮드려 연합했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혈과 육이 아닌 믿음으로 연합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에서도, 누룩과 같은 방해와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원수들은 두려워 떠나가고 우리는 견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혈과 육의 감정으로 치우쳤던 적이 있나요?
2. 내가 주로 힘과 위로를 얻는 통로는 무엇인가요?
3.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제한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마귀의 방해와 세상의 두려움에 넘어졌던 것을 회개합시다.
3. 오직 하나님으로만 강해지기 위해 힘쓰고,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FAMILY 나눔

2026년 8월 23일

믿음으로 세워짐

느헤미야 6장 15-19절

